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기억할 수 없을까 봐

누구나 한 번은 메모에 소홀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메모가 소중하고 필요한 지도 모른다. 암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를 하는 사람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마냥 웃었던 날', '울었던 날', '기대하게 하는 날'에 종종 밑줄을 치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저문다. 이처럼, '기억할 수 없을까 봐' 사람들은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한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교사·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혹시나 잊어버려/기억할 수 없을까 봐/ 살면서 아름답고/슬픈 날 밑에다가/붉은색 밑줄을 친다/잊어버리지 말고/ 그 밑줄이 다 지나가면/한 해가 다 지나간다/웃었던 날 울었던 날/ 밑줄 속에 다 감추고/사랑한 사람 가슴에/밑줄 하나를 더 그어본다/ 날마다 그 밑줄 속에/그리움도 담 아두고/별빛 같은 꿈을 담아/끝없이 기다리던/밑줄친 그날을 지나/ 한 세월이 다 간다

-임영석 시인 '밑줄' -
학창시절, 줄음이 밀려오는 5교시 수학 수업이 유난히 많았던 기억이

다. 교사가 된 현장에서는 시간표 편성에 있어 가능하면, 국, 영, 수 주요교과는 학습효과를 위해 오전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예체능이나 기타 교과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협조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꼭 5교시가 수학이었던 나의 고교 시절 시간표는 아마도 좋아하는 시간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목을 배정하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배려한 선생님들의 교육지책(善處之策)이었음을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 수학 시간 줄음과의 정정보다도 앞서서 것이 있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나눠주신 쪽보를 암기하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 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밑변X 높이÷2')이 대부분 밑줄을 긋는 대상이었다. 지금의 선생님들의 존함 석 자도 가물가물하다. 그 시절, 조금만 더 열심히 밑줄을 그었다면, 그리고 암기했다면 지

금보다 수학에 더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 시간 정말 열심히 밑줄을 그었던 것도 '기억할 수 없을까 봐' 이지 않을까?

실랑실랑 달콤한 볼베림이 콧등을 때리던 피 튀기는 5교시 수학 시간 밑줄 긋기

이러한 고향의 기억 꿈동산 아래 개똥이가 살던 동계구름처럼 자신감 분산되고

'밑변X높이÷2=' 지겨운 공식 무덤에 저만치 아른거리는 스승님의 존함 석 자가 번쩍

밑줄+밑줄=밑줄, 밑줄 긋기에도 찾을 수 없는 쪽보 쪽지가 고통의 번기를 가득 채운다.

-박여범 시인 '밑변X높이÷2=' -

'기억할 수 없을까 봐' 적고, 촬영하고, 다시 그것을 복사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세월은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 '기억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자신감'을 충전하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에 영상이나 음성녹음을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다. 아무리 기록이 많다 한들, 다 쓸모없는 헛된 일이 되기 쉽다.

믿음, 자신감, 최선, 여유, 긍정적인 생각하기만이 나이나 사회적 경력, 남녀의 구별 없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다. 나를, 가족을, 구성원을, 사람과 사람을 믿는다면 기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공강 시간, 급한 공문처리도 없고, 한가한 시간에 책과 만난다. 자주 책을 읽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이라는 것이 나만 한가하다고 책을 꺼내 읽기에는 부담이 되는 곳이다. 그런데 쉼터 안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 분명 내가 그은 부분이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읽어 보았으나 공감이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밑줄을 그은 거지? 라는 의문이 앞선다. 그러면서 계속 뒤문장을 읽어 내려간다. 번역 투의 문장에 짜증이 밀려오고, 책을 덮어 버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끌림이 나의 눈에 들려진 연필은 밑줄은 긋는다. 왜, '기억할 수 없을까 봐'.

사설

오래도록 잠만 자고 있는 탄소 소재법

전북도는 탄소 소재법을 깨워야 한다. 오래도록 잠만 자고 있기 때문이다.탄소 소재법을 깨워야 뭐가 돼도 될 터인데 국회가 장기간 관심을 끄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전북의 탄소산업이 웅비의 날개를 펼칠 수 없다. 전북도가 말한 그대로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려면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야만 한다. 지난 여름 일본의 무역 도발로 양국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부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일본을 따라잡을 것처럼 했는데 지금 돌이켜 판단해보니 썰렁하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에 즐거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전북에는 전주와 완주에 137개의 탄소기 업체가 있다. 따라서 전북의 탄소산업은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야 한다.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전북의 탄소섬유 기술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원 약속에 부응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앞으로 탄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있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전략 마련

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야심찬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다. 그 성공 수순을 밟기 위해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관련해 미래 전망은 밝다.효성이 전주 공장에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저번에 의사를 밝힌 것도 그렇다. 일본의 무역 도발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전북도와 관계자들은 이제 탄소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와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분명하다.대통령의 약속 그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실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조 4436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또 무슨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2028년까지 투자될1조4436억 원으로 세계 탄소시장 10% 확보가 제대로 성취될지도 의문이다. 그래도 해보는게까지는 해봐야 한다. 일단 어쨌든 전북도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오래 잠자고 있는 탄소소재법을 깨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어찌 되어나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어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예 신경을 꺼버리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간헐적으로 간보듯 꺼내보는 말 가지고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뭐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으니 갖게된 생각이다.현대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로 많은 일자리를 잃고 군산 경제가 비틀거리더니 인구가 대폭으로 줄어 버렸다. 그러자 앞치마땀진격으로 땅값도 폭락했다. 그 하락 폭이 전국과 비교해 최악이었는데 이래저래 군산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나날이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상시적으로 머리를 맞대야겠다.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말하거나와 군산 살리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번에 군산형 일자리 만들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행여나 하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군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기대감이 백년하청이 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활성화 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어떻게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눈치를 보고 있

어서는 안된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날 위기 극복을 위해 조끼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제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끼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살리기 행보를 뚜렷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주 인구는 계속 줄 것이고 땅값 또한 앞으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에 전북도와 도지사는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점차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다. 자체의 힘만으로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군산형 일자리는 것도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고 수년 후에나 실행될 일이다. 아직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이야기다.전북도는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군산을 살려내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으면 무엇인가 확실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야만 한다.

독자제언

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자

대다수 국민들은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적색 신호시 좌회전 금지' 문구도 붙어 있지만 이걸 모르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다. 그런 운전자에게 물어보면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 하잖아?"며 도리어 "무슨 위반을 하잖아?"며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시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좌측 보행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시

에는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적색신호일 때 좌우측면은 녹색등 정상신호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위반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의 뜻에는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색신호시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는 중대과실사고에 포함된다. 또한 녹색(직진)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시에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성찬 교정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경찰에 돌 던지는 칠레 반정부 시위대



23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중앙노동조합총연맹(CUT)이 주도하는 이틀간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서비스업인 피네라 대통령이 시위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연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을 내놨으나 시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1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